

# 葉燮 《原詩》의 術語問題 연구 I

— ‘理·事·情’의 개념정의를 중심으로

崔炳學\*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理·事·情’의 내재적 함의
3. 審美標準으로서의 ‘情’의 기능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明末清初 시기는 왕조가 바뀌는 역사적인 의미의 전환기로서, 사회경제구조부터 문화형태, 사회적 가치관, 문학풍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변혁의 조짐을 드러내어, 중국 사상사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활발한 논쟁의 시기로 평가된다.<sup>1)</sup> 우리는 통상적으로 明末과 清初를 병칭하는데, 이 두 시기 사이에 사상문화적인 연속성 뿐 아니라 문학풍조의 상관성도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품경제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출현, 개인의식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근대적 성향을 노정한 晚明 시기의 사회문화적인 풍조와 문학적 기풍은, 清初 문

\* 金剛大學校 中國語通譯學科 부교수

1) 이러한 논쟁이 불거진 주된 이유로는, 한편으로는 사회기풍에서 개방성과 다양성이 부각되어 신분의 上下, 문학의 雅俗, 이데올로기의 정통성과 이질성 등 모든 차별이 흐려졌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붕괴되는 정치 시스템과 완고한 사회 메카니즘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趙美媛, <明末清初의 情에 대한 談論과 小說의 再現樣相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28》, 434쪽 참조)

학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하나의 단초로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晩明 시기 문단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自然人性論은, 개인의 情感을 중시하여 자유로운 性靈을 추구하는 데서 당시 사회와 문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또한 自我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狂'의 극단으로 내달린 탓에 내용의 空論化를 초래하였고, 추종자들의 인식과 주장이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과 반항으로 해석됨에 따라 淸初 문단에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淸初 문단의 대표적 학자인 顧炎武, 黃宗羲 등은 지나치게 관념적인 종래의 학풍을 비판하고 과학적인 考證에 기반을 둔 실천적 研鑽의 자세를 지향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학풍 조성을 주도하였다. 이에 明朝 멸망의 원인을 宋明理學과 心學의 학문적 결합에서 찾아보고 晩明 풍조의 폐해를 矯正하자는 기치를 내건 새로운 철학기풍이 17세기를 전후하여 대두되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청초의 葉燮(1627-1703)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활동한 詩論家로서, 사상적으로 진보적인 인물이라 평가받는다. 封建社會에서의 '官'과 '民'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이해상의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여 줄곧 봉건사회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고, 또 민중에게 환난과 고통을 가져온 통치 집단의 폐해를 폭로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葉燮의 대표작 《原詩》는, 간행 당시에는 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또 時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평가되었으나, 현대시기에 이르러 재평가되면서 독자적인 詩論體系를 구축하였다는 찬사까지 받게 되었고, 지난세기 7-80년대의 '葉燮研究熱'이 최근까지 지속

2) 이를 두고 晩明 李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저명한 美學研究 학자인 葉朗은 葉燮이 “夫利不在官即在民，官之利未有不取之民者。”(《已畦文集》13권, <吳興漢槎書>)라고 한 제언에 보이는 '民'에 경도된 생각을 유사점으로 들어 양자 간의 영향관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葉朗, 《中國美學史大綱》, 490쪽 참조) 이 외에도 李贄가 '童心說'을 제안하며 문학가가 갖춰야 할 주관요소로 '才, 識, 膽'의 세 가지를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葉燮이 작가의 주관요소로 '才, 膽, 識, 力'의 네 가지를 제안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양자 간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기적인 측면이나 문학적 주장에서 개연성이 있어도, 晩明思潮로부터의 영향 관계는, 별도의 확인 작업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명말청초의 사상적 연속성을 감안할 경우, 판료 지주층과의 충돌로 스스로의 파직을 초래한 葉燮의 강직한 성격과 詩論 곳곳에 보이는 진보적 성격의 詩學觀點, 그리고 불교적 색채 등을 규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되어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기왕의 연구현황<sup>3)</sup>을 살펴보면, 중국 대륙에서는 지난세기 70년대 이래 지금까지 근 300편을 전후한 분량의 연구 성과가 집적되어 있는데 비해, 葉燮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지난세기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너덧 편의 학위논문이 등장하고 90년대 이후로 학위논문의 범주 안에서 세부 주제를 다룬 일부 학자들의 개별 학술논문 10여 편이 발표되더니 금세기 들어선 역주 형식의 학위논문 외에 역주번역서가 출간된 정도에 머물러 있다. 기왕의 연구 성과를 연구테마에 따라 분류해보면, 《原詩》의 '體系性', '文學發展觀', '創作主體論(才·膽·識·力說)', '文學批評論', 그리고 '形象思惟論'이나 審美客體論 등을 포함한 創作本體論(理·事·情說)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자의 눈길을 끈 대목은, 創作本體論이며 그 중에서도 葉燮 《原詩》의 '내재적 모순성 문제'에 대한 연구 주제들이다.<sup>4)</sup> 특히 葉燮이 劉勰에 비견되는 체계성과 이론적 토

3) 葉燮과 《原詩》에 대한 해외에서의 연구현황은, 李曉峰의 박사학위논문 《葉燮〈原詩〉研究》, 管磊의 석사학위논문 《淺析葉燮〈原詩〉中的“情”》, 馬瑩의 석사학위논문 《葉燮〈原詩〉詩學思想基本特質的再檢討》 등을 참조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중국에서의 연구현황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20세기 3-40년대에 이루어진 批評史 저술중의 관련 연구를 들 수 있다. 朱東潤, 郭紹虞 등이 대표한다. 이 시기엔 '自成一家' 측면에서의 평가가 두드러지나 내용이 소략하다. 둘째, 20세기 7-80년대에 등장한 葉燮 연구열풍을 들 수 있다. 霍松林, 蔣凡, 鮑澤, 葉朗, 張文勳, 蔣述卓 등이 주도한 이 시기엔 철학적 사유형태에 기초한 詩學이나 美學 영역에서의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形象思惟論'이나 '美學思想'과 같은 연구테마가 눈에 띄나 唯物主義 관점에 천착한 논술이 많다. 셋째, 20세기 8-90년대에 등장한 연구를 들 수 있다. 張少康, 成復旺, 張健 등이 대표하는데, 《原詩》의 내재적 모순성과 관련한 질의가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다. 넷째, 지난 세기 8-90년대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한 금세기 이후의 연구를 들 수 있다. 蔡鎮楚, 陳良運, 宇文所安, 方漢文, 張亞冰 등이 대표하는데, 대략 두 분야의 연구로 나뉜다. 하나는 개방적인 관점을 보이는 中西文論 비교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古代文學批評에서의 연구테마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연구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 서양의 문학 비평 기준으로 재단한 까닭에 동서양 간의 세세한 차이까지 명확하게 제시해내지는 못하였다. 다음으로 대만에서는 吳宏一과 張靜二, 任中杰 등의 관련 연구가 대표적이며, 그 외 해외 지역에서는 독일 한학자인 Karl-Heinz Pohl(中國名: 卜松山)과 미국 한학자 William H. Nienhauser, Jr(中國名: 倪豪士), 일본 한학자 青木正兒 등의 관련 연구를 대표적 성과로 꼽을 수 있다.

4) 張健은 《清代詩學研究》(1999: 346-347)에서, '理·事·情'의 세 요소가 客觀의 실체인데 이들을 주재하는 '活法'이 主觀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이론적 모순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馬瑩(2013) 앞의 글 2-6쪽 참조) 필자는 이러한 지적이, 핵심 술어의

대를 갖추어 詩論史上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독보적인 詩學世界를 구축하였다는 기왕의 평가가, 대다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또 상당수 연구자들에게 마치 하나의 큰 '연구 기준틀'과도 같이 기능한다는 점은, 필자로 하여금 葉燮 시론의 구성요소를 면밀하게 재조명해볼 생각을 갖게 하였다. 詩歌의 本源 문제부터 創作, 批評, 美學思想, 詩學思想에 이르기까지 外延的인 성격으로서의 연구테마는 다양해졌지만 정작 原典에 내포된 內在的 요소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불충분하여 합당한 평가를 담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고, 原典 내에서 뼈대로 작용하는 術語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이 '古典 다시 읽기'가 적극 권장되는 현 시점에서 충분한 연구의의를 지닌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 안에서 原典의 핵심 구성요소인 術語의 궁극적인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술어의 실질적인 '기능'과 '작용'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지하듯, 論理的이고 理性的이며 體系의인데다 確實性和 思辨을 중시는 서양의 문학비평에 비해, 동양의 문학비평은 形相의이고 感性的인데다 모호한 성격이 잠재되어 있고 깨달음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sup>5)</sup> 東洋文學批評에 담겨있는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면, 中國文學批評에서의 유의미한 연구방법으로, 개별 術語의 개념상의 함의를 규명함으로써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 術語의 개념을 皮相的으로만 이해하고 內在的 함의를 도외시한다면 모순적 담론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6)</sup> 葉

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모순성 자체보다 술어 개념의 '이중적 의미' 설정에 관심을 두고 본고의 논의를 전개한다.

- 5) 牛林杰은 동서양 문학비평 담론의 용어 혹은 술어(discourse) 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용어전환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역설하였다. 특히 연구테마에 따른 이른바 '체계화' 작업은 서양문학비평의 특징으로서 동양문학비평의 특징에는 맞지 않는데다 서양문학비평의 체계화가 오늘날 중대한 좌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비평 이론의 '체계화'에서 체계화의 '解體'로 전환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개별 개념을 중시하는 '思想的 斷片'을 통한 비평을 추구하는 게 당대 세계문학비평의 한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동양문학비평의 생명력을 살리기 위해선 동양문학비평의 특징에 맞게 연구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필자는, 연구 시각의 확장은 연구 대상을 세분화하는 데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동서양 문학비평 담론의 차이에 대한 고찰>, 《아시아 문화연구: 10》), 34-42쪽 참조)

- 6) 필자는, 특히 명말청초 시기가 문학사적으로 술어의 개념정의의 문제에 있어 다른 조대에

變의 경우, ‘源流本末’, ‘正變盛衰’의 관점에서 《原詩》를 통해 當時의 擬古氣風을 바로잡으려 했고 또 ‘理·事·情’, ‘才·膽·識·力’說을 내세워 詩歌 창작과정에서의 主客觀條件의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詩論史的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葉變 詩論의 핵심 술어로 거론되는 ‘理·事·情’의 의미범주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하고 거의 천편일률적인 설명으로 일관되어 있어, 기존의 평가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7)</sup>

이에 필자는, 葉變이 《原詩》에서 제시한 술어에서 발견되는 적지 않은 모순성과 의문점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들 주요 술어의 개념에 어떠한 함의가 담겨있는지 살펴봄으로써 葉變 詩學의 실체를 재조명해 보는 순차적인 과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고는 그 첫 단계 작업으로 시도되며 우선 葉變 시론의 핵심요소로 평가되는 ‘理·事·情’의 개념정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그가 《原詩》에서 피력한 詩論의 지향점을 새로이 규명해보기 위한, 전체 구상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시가창작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라도 문자 상의 피상적인 풀이를 넘어서야 개념의 내재적인 함의에 대한 모순된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평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용어가 처음 출현하여 후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개념 범주를 확장해가는지를 살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용어 출현에 영향을 미친 전체적인 배경요인과의 연계성을 전제로 한 텍스트 자체의 술어에 대한 검토는 물론 이론의 역사적 연원과 맥락을 짚어주는 일 역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崔日義, <중국고전시학의 효율적 교수를 위한 방법론 모색>, 《中語中文學》: 37, 399-401쪽 참조)

7) 최근의 葉變 관련연구 중에는, 심지어 葉變이 詩論史的으로 ‘理論性’과 ‘體系性’에서 그 성취를 인정받은 이면에는 ‘이론적인 실패’라고 지적될 만한 부분이 있음을 설파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들은 《原詩》에 보이는 주요 술어의 개념정의가 모호하거나 미흡하다는 점을 그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田義勇의 <葉變《原詩》의理論失敗及敎訓>이 대표적이다.

## 2. ‘理·事·情’의 내재적 함의

詩歌의 創作原理와 그 단계를 설명할 때, 창작의 主體가 되는 작가와 작품의 표현대상인 客體 간에 존재하는 ‘相應性’이 거론된다. 객체와 주체 간의 交融 과정에서 소위 ‘예술적 형상’이 생성되어, 詩歌作品 고유의 ‘詩的 意境’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詩歌 창작으로 귀결되는 主客觀의 호응관계에 대해 葉變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① ‘理·事·情’이라 지칭하는 세 가지는 만물의 변화하는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다. 각각각색의 소리부터 모습까지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모두 ‘在物者’를 들어 말한 것이니, 이들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사물은 하나도 없다. ‘才·膽·識·力’이라 지칭하는 네 가지는 이 마음의 神明을 다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각각각색의 소리부터 모습까지 그 어떤 것이든 이들에 의거해야만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는 모두 ‘在我者’를 들어 말한 것이니, 어느 하나도 이와 같은 마음에서 표출되지 않는 것이 없다. ‘在我’의 네 가지로 ‘在物’의 세 가지를 헤아려 합하면 작가의 시문이 되는 것이니, 크게는 천지를 다스리는 것에서 작가는 하나의 동식물까지 詠嘆하고 읊조림에 어떤 경우에도 이들을 벗어나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曰理、曰事、曰情，此三言者足以窮盡萬有之變態。凡形形色色，音聲狀貌，舉不能越乎此。此舉在物者而爲言，而無一物之或能去此者也。曰才、曰膽、曰識、曰力，此四言者所以窮盡此心之神明。凡形形色色，音聲狀貌，無不待於此而爲之發宣昭著。此舉在我者而爲言，而無一不如此心以出之者也。以在我之四，衡在物之三，合而爲作者之文章。大之經緯天地，細而一動一植，咏嘆謳吟，俱不能離是而爲言者矣。”，〈原詩〉 內篇下)

‘理·事·情’이란 술어로 객체 즉 우리를 둘러싼 객관세계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였고, 작품을 창작하는 데 요구되는 작가의 주체요소를 ‘才·膽·識·力’이란 술어로 개괄하였다. 그리고 작가가 ‘才·膽·識·力’을 바탕으로 객체의 ‘理·事·情’을 인식하고 주체와 객체 양자를 융합시켜 글로 표현해낸 결과가 바로 작품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중 ‘理·事·情’ 각각의 개념을

葉燮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그는 우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㉞ 문장이란, 천지만물의 情狀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 한 그루의 나무와 한 포기 풀에 비유해보면, 풀과 나무를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건 '理'이고, 그들이 이미 생겨났으면 '事'이며, 그리고 생겨난 후 무성하게 자라나 千態萬象의 모습을 지니게 되면 모두 스스로 얻은 情趣가 있나니 바로 '情'이다. ("文章者, 所以表天地萬物之情狀也。...譬之一木一草, 其能發生者, 理也。其既發生, 則事也。既發生之后, 天矯滋植, 情狀萬千, 咸有自得之趣, 則情也。"《原詩》內篇上)

그의 비유에 의하면, '理'는 풀과 나무가 싹을 틔우는 원리 곧 객관사물의 본질 혹은 그것이 발생하는 기본원리를 가리키고, '事'는 풀과 나무가 싹을 틔운 상태로서의 현상 곧 객관사물이 기본원리에 따라 드러내는 實狀을 말하며, '情'은 풀과 나무가 싹을 틔우고 자라난 모습 곧 객관사물이 발생하여 드러내는 각종 양태나 개별적인 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일단의 언급에서 葉燮이 말하는 '理'란, 객관세계의 각종 '현상'이 생성되도록 하는 '내재적인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자연세계는 물론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회활동까지 객관세계의 의미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sup>8)</sup> 문자 상의 의미로 보자면, 시가에 표현된 素材의 범주와 그 예술적 意境 모두를 의미하는 제언이라 추정되지만, 시가창작의 담론에서 벗어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예문 ㉠와 ㉡를 근거로 한 '理·事·情'의 개념 정의에 덧붙여진 국내 학자의 설명을 살펴보자.

葉燮은 인간의 인식 이외의 모든 물질세계, 즉 인식의 대상 전반을 객관세계로 간주하였으며, 인간의 주관세계를 형성하게 하는 물질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전제

8) 다음의 언급을 보면, 葉燮은, 인간을 둘러싼 세상 모든 일을 객관세계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自開闢以來, 天地之大, 古今之變, 萬匯之賦, 日星河岳, 賦物象形, 兵刑禮樂, 飲食男女, 於以發爲文章, 形爲詩賦, 其道萬千。余得以三語蔽之: 曰理、曰事、曰情, 不出乎此而已。"《原詩》內篇下)

하고 있다. ... 葉變은, 객관사물이 변화·발전하는 내재적 규율, 즉 그 존재적 합리성을 '理'로 규정하고 있고, 객관사물의 변화·발전하는 제반 과정의 形象성을 '事'로 파악하고 있으며, 객관사물의 변화·발전하는 외재적 형상의 個別성을 '情'으로 총괄하고 있다. ... 葉變은 인간의 인식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물질은 물론 인류의 상호작용으로 객관적 발전법칙을 갖는 사회적 총체까지 모두 심미대상으로서의 객관세계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객관세계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전이되거나 개조되는 것이 아니며, 현실생활을 통해 인간의 주관세계와 더불어 예술적 통일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sup>9)</sup>

이 일단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理·事·情'의 개념은, 葉變 관련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설명이지만, 시가의 창작관련 담론보다는 철학적 범주에서의 설명으로 이해된다. 즉 인용한 주장처럼 "모든 객관 세계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전이되거나 개조되는 게 아니다"는 설명이 성립된다고 전제하면, 예문 ㉑와 ㉒에서 葉變이 제시한 '理·事·情'은 시가예술의 창작론 범주를 벗어난 다분히 철학적 범주에서의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문이 객관세계의 情狀을 드러내어 전통 시가에서 언급되는 '物我一體'의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선, 작가에게서 詩化되는 감정의 전이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詩화된 객관세계는 작가의 意境으로 개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객관세계의 구성요소로 정의된 '理·事·情'이란 술어가 개별적으로는 고대 詩論이나 文論에 관련된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세 가지가 하나의 '조합된 술어'로 등장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sup>10)</sup> 주지하듯, '理·事·情'의 개념이 개별적인 술어 혹은 두 가지가 조합된 술어로서 병기되는 예는 주로 철학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理'

9) 예시로 제시한 서술은, 학위논문 《葉變詩論 研究》를 위시로 10여 편의 葉變 관련 학술논문을 보고하여 국내에서 대표적인 葉變 연구 전문가로 꼽히는 김해명 교수의 설명이다. (<시가창작에 관한 葉變의 주·객관조건>, 《중국어문학논집 4》, 9-10쪽 참조)

10) 先例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거꾸로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晚明시기 문단의 풍조는 '情'을 극도로 숭상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淸初 문단의 풍조에선 理學에 대한 계승의 의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理'와 '情'을 병기하여 '하나의 술어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출발점부터 모순성을 담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더욱더 주요술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 개념은, 先秦諸子부터 魏晉玄學, 宋明理學에 이르기까지 주요 술어로 등장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 宋明理學에서는 주로 ‘理一分殊’의 명제로 다뤄진 바 있고<sup>11)</sup>, 또 ‘理’와 ‘事’의 두 가지 개념은 唐대에 불교 華嚴宗과 禪宗에서 주요 이론문제로 거론되고 있다.<sup>12)</sup> 宋明理學家들의 언론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理’의 개념은, 위 예문 ㉠과 ㉡에서 葉燮이 제시한 ‘理·事·情’에서의 ‘理’개념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sup>13)</sup> 곧 葉燮이 말하는 ‘理’의 개념 혹은 ‘理·事’의 관계가 고대 철학의 범주에서 거론되는 ‘본체’와 ‘현상’의 관계로서의 ‘理·事’의 개념과 대동소이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며, 葉燮의 가학환경<sup>14)</sup>이나 시기적인 상황<sup>15)</sup>으로 볼 때, 그가 이들 불교 관련 주장이나 理學으로부터 영향 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葉燮은 철학 영역의 本體論에서 쓰이는 술어를 끌어다 원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원래의 개념적 의미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후대의 평자들이 그의

- 11) ‘理一分殊’란, ‘理’와 만물의 관계, 天理와 人性的의 관계를 해석하는 宋明理學家들의 중요한 명제인데, 朱熹에 이르러 본체론의 관점에서 정립되었다. 朱熹에 따르면, ‘理’의 개념을 살피기 위해 천지 만물의 ‘理’를 총합하면 단지 하나의 ‘理’가 있을 뿐인데, 이를 쪼개보면 모든 사물마다 각기 하나의 ‘理’가 존재하고 또 각양각색의 사물(事)은 그 하나의 ‘理’가 체현되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朱子語類》 권18에 보이는 언급에서 이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萬物皆有此理, 理皆同出一原, 但所居之位不同, 則其理之用不一.”(姚才剛, <‘理一分殊’與儒學重建—論劉述先新儒學思想的方法論原則>, 《湖北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5-1> 참조)
- 12) 唐代 華嚴宗에서는 ‘理’를 절대 정신의 본체로, ‘事’를 객관 현상세계로 보았으며, ‘事’는 ‘理’에서 파생되는 것이고 ‘理’는 ‘事’의 존재 근거가 된다고 한다. 현상이 본체의 외표가 되며, 본체가 현상의 내인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당대 화엄종과 葉燮 이론에서 나타나는 ‘理’와 ‘事’의 개념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김해명 앞의 글 11쪽 참조) 그리고 佛敎에서의 ‘理·事’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예문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疏·序》에 나오는 “事理雙修。依本智而求佛智。理隨事變。則一多緣起之無邊。事得理融。則千差涉入而無碍。”같은 구절이나, 《華嚴法界玄鏡·卷上》에 보이는 事法界, 理法界, 理事無碍法界, 事事無碍法界에 대한 단계별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 13) 葉朗은 이러한 이유에서 葉燮의 美學思想이 宋代 葉適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葉朗 위의 책 490쪽 참조)
- 14) 특히 葉燮의 부친 葉紹袁(1589-1648)이 평소부터 불교에 심취하여 佛經에 註釋을 달기도 하였고 만년에는 직접 出家까지 했다는 점에서 葉燮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葉燮 자신도 어려서부터 佛經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5) 宋代 嚴羽를 필두로 淸初 王船山에 이르기까지, 議論으로 詩를 논하는 풍조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理不入詩, 詩不言理”의 주장과 인식은 宋代 이후 하나의 風潮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의도를 규명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sup>16)</sup> 철학에서의 개념을 문학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학 고유의 생명력이 간섭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詩文의 창작이 객관세계의 반영인지 아니면 주관 세계의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최소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활을 표현해낸다는 의미에서, ‘理’의 개입으로 詩文에 담긴 審美的 가치가 일률적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葉燮은 위 예문 ㉑에서 ‘以在我之四， 衡在物之三’의 과정을 통해 詩文이 탄생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衡’자의 의미를 어떻게 불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sup>17)</sup> ‘저울 형’이라 풀이되는 ‘衡’자가 동사로 쓰일 경우의 사전적 의미에는, ‘비교 검토하다, 評定하다, 숙고하다, 평가하여 결정하다(衡量, 評定, judge, evaluate)’는 등의 풀이가 포함되는데, 다분히 이성적인 평가나 판단의 의의가 강해서, 詩的 감상이나 詩의 공감의 맥락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葉燮이 《原詩》에서 제시한 ‘理·事·情’의 개념에는 철학적 담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하겠는데, 이럴 경우 과연 창작본체론으로서의 의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숙제로 남는다. 필자는 《原詩》에 제시된 주요 술어의 ‘이중적 의미구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葉燮이 《原詩》에서 理學家들의 說理의인 경향을 지향하지 않았고, 또 ‘詩의 근본을 찾는다(原詩)’는 서명의 의미에 충실하게 찬술하였다는 전제를 감안한다면, 詩의 대상이나 審美標準에 대한 葉燮 나름의 의미 설

16) 철학 범주는 물론 예술 범주의 술어까지도 문학 범주에 援用하는 예가 中國 古代 詩論이나 文論에선 허다하다. 현대문학비평에서 이른바 ‘의미론적 일탈(semantic deviation)’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수법은, 詩書는 물론 文·史·哲까지 두루 섭렵하는 데 주력했던 고대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선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된 방법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가 현대 시점에서 古代 저술에서 주요술어에 담긴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여 평가하기 위해선 동일한 ‘이해구조’를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된다. 단편적인 文字 상의 의미나 해당 술어가 출현하는 단락에서의 의미를, 그들이 살았던 時代의 환경이나 개인적 상황 그리고 다른 논술들과의 의미적 연관성 안에서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당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17) 王曉雯, <概念移植中的矛盾>(《柳州師專學報》, 2012), 33쪽 참조.

정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적인 철학적 범주의 술어가 시적 창작과 공감, 그리고 감상의 범주에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쓰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哲學的 사고의 틀과 구분되는 詩的 構想의 결과물로서 《原詩》에 내포된 이면적 단서들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原詩》에 내포된 이러한 단서들로 인해, 詩文에 세상 만물의 '내재적인 메커니즘'으로서의 '理'를 담아내야 한다는 葉燮의 요구는, 작가가 마음속에 觸發된 것을 그대로 쏟아내는 과정에서 일종의 '변형'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객관세계의 '理'가 작가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觸發) 순간, 그 '理'는 더 이상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작가의 情緒가 덧씌워진 '理'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葉燮이 제기한 '克肖自然'의 요구는 古代詩論에서 거론되는 '言志緣情'의 주장과는 다소 궤를 달리한다. 葉燮은 이와 관련하여 대화체 방식으로, 《原詩》 중 '理·事·情'의 세 가지가 문장가에게 핵심적인 요점이 될지 모르나, 그중 '理·事'의 두 가지는 詩와는 상관성이 없어 보이니 詩에 있어선 얘기가 달라지지 않느냐는 물음을 설정하고<sup>18)</sup>, '理'와 '事'의 意味 범주를 각기 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담하고 있다.

그대는 단지 말로 형용할 수 있고 움켜쥘 수 있는 '理'가 (시문에 표현된) '理'라고 알고 있지만, 命名하고 말하는 바가 단절시킨 '理'가 지극한 '理'가 됨도 아는가<sup>19)</sup>? 그대는 단지 이 '事'가 있는 것이 (시문에 표현된) '事'가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 '事'가 없는 게 모든 '事'를 드러내는 바가 된다는 것을 아는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理'는 사람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詩人으로서 어찌 그러한 '理'를 말하겠는가? 징험할 수 있는 '事'는 사람마다 누구나 읊어낼 수 있는데, 詩人으로서 어찌 그러한 '事'를 읊조리겠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理'와 징험할 수 없는 '事'

18) “此三言，固文家之切要關鍵。而語於詩，則情之一言，義固不易；而理與事，似於詩之義，未爲切要也。”(《原詩》內篇上)

19)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老子》 1장에 나오는,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고,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항상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음은 천지의 처음이요, 이름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이다。(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無名天地之始，有名萬物之母。)”라는 구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葉燮이 말하는 '名言所絕之理'란,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개념화할 수 없는 대상이란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있어야만, 형상을 마음속에서 터득하는 순간에 그것들을 만나게 되고, ‘理’와 ‘事’ 중에 눈앞에서 환해지지 않는 게 없다. (“然子但知可言可執之理之爲理, 而抑知名言所絕之理之爲至理乎? 子但知有是事之爲事, 而抑知無是事之爲凡事之所出乎? 可言之理, 人人能言之, 又安在詩人之言之? 可徵之事, 人人能述之, 又安在詩人之述之? 必有不可言之理, 不可述之事, 遇之於默會意象之表, 而理與事無不燦然於前者也。”《原詩》內篇上)

위 예문에는 葉燮의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다. 첫째, ‘理’는 총괄적인 성격의 명칭인데, ‘可言可執之理’와 ‘至理’의 구분이 있다. 둘째, ‘事’에도 ‘有·無’의 구분이 있다. 셋째, 말로 형용하는 데도 ‘詩人之言’과 ‘人人之言’의 구분이 있고, ‘事’에도 ‘詩人之事’와 ‘人人之事’의 구분이 있다. 넷째, 詩人の 심미 활동은 일반인의 그것과 구분되고 구현된 경계의 예술적 수준도 높다. 다섯째, ‘默會意象之表’는 詩人 특유의 표현방식이다.<sup>20)</sup>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할 수 있거나 파악할 수 있는 ‘理’나 현실의 현상만을 말하는 ‘事’를 시에 담아내면 詩의 감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詩에는, 命名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치인 ‘理’와 詩의 素材로 쓰인 까닭이 불분명한 현상인 ‘事’가 구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詩의 표현에 무덤덤한 일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과 詩人の 입에서 나오는 표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말로 형언할 수 없고 말미암은 까닭을 밝힐 수 없는 시적 소재들이 마음속에서 觸發되어 하나의 형상으로 맺어져 詩에 표현되면, 詩人이 추구하는 詩의 정신과 시적 소재로서의 ‘理’와 ‘事’도 절로 분명해진다는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詩人の 언어는 일반인의 언어와 구분된다는 생각이다. 詩人만의 특수한 感情의 작용이 기능하여 결국에는 詩를 詩답게 만든다는 인식은, 葉燮 詩論의 핵심요소로 언급되는 ‘理·事·情’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한다. 葉燮 시론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이중구조의 개념들은 그의 시론에서 모순성으로 읽혀지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시론이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20) 趙天一, 《中國古典意象史論》(西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154쪽 참조.

하여 고대 시론 중 意象論 영역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선 다음 장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3. 審美標準으로서의 '情'의 기능

詩歌의 심미표준과 관련하여, 詩人의 주관의식을 거친 '理·事'의 개념 개조에 '情'이 어떠한 효용적 기능을 드러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情'의 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보통 '性, 理, 欲' 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격이 규명되었다. 漢代부터 宋代의 新儒家에 이르기까지는 도덕주의적 측면에 치우쳐 '情'과 '性'을 이원화하여 대립적인 성격으로 규정하였지만, 明代 중엽에 이르러선 '情'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등장하였다. 특히 湯顯祖는 '理'와 반대되는 속성으로 '理'를 초월하는 개념이라 여겼고, 馮夢龍은 '情'이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개념이라 여겨 거의 종교적인 차원으로까지 숭배하였다. 이들에 의해 '情'은 明末淸初 시기에 이르러 유가적인 사회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理'마저 통합한 개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sup>21)</sup> 앞서 논의에서 지적한 대로 葉燮이 설정한 이중적인 의미구조를 감안하면, 《原詩》에 보이는 '情'의 개념도 明末淸初의 '情'에 대한 인식과 분리시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葉燮이 객관세계 구성요소로서 제시한 '情'의 개념에는 또한 여전히 작가의 주관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표현해내는 예술의 심미본체를 중국 고대시론에서는 '審美意象'이라 하는데<sup>22)</sup>, 劉鏞이 '情'은 '物'에 의해서 일어나고 '物'은 '情'에 의해서 살피진다고 하여 主觀的인 '情'과 客觀的인 '物'이 상호 어우러지는 관계를 설명한 것과

21) 趙美媛 앞의 글 435쪽 참조.

22) 이에 관련된 연구범주는 연구자나 연구영역에 따라 '藝術本源論', '創作本源論', '主客觀統一說' 등으로 상이하게 지칭되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을 동일 범주의 다른 명칭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葉朗, 위의 책, 488-528쪽 참조)

를 같이한다. 이에 대해 원로학자 袁行霈는 意象을 “主觀情意에 융합된 客觀物象 혹은 객관물상을 빌어 표현된 主觀情意”라 정의하였고, 意境을 “詩人의 主觀情意와 客觀物象이 어우러져 형성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sup>23)</sup> 意象과 意境 모두 주관의 ‘情’과 객관의 ‘物’ 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되어 있지만, 意境은 그 범위가 더 커서 보통 詩 전체 혹은 개별 詩句에서 구현된 예술적 경계를 말하며, 意象은 바로 그러한 詩의 意境을 구성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앞 장의 논의에 따르면, ‘不可言之理’와 ‘不可述之事’는 바로 葉燮에게 있어서 詩人이 구현한 意境을 구성하는 意象의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따라서 葉燮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詩의 意象은 시문에 표현된 理·事가 철학 범주에서의 ‘理·事’와 구분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意象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葉燮의 생각을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經世的 의미를 담고 있는 철학적 범주에서의 ‘理·事’는 詩學 범주에서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葉燮의 意象論은 宋代의 시학전통을 추송한 ‘以理爲詩’, ‘以理論詩’의 전통을 겨냥하여 제기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아래의 예문에서 이러한 평가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性靈說과 妙悟說 등의 풍조를 추종하는 세력이 明末淸初의 문단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葉燮은 자신의 ‘物我相衡論’을 제시하며 詩의 素材가 되는 ‘在物者’에 ‘理·事’를 포함시킨 까닭을 하나하나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주장에 비판적일 수 있는 상대입장과의 문답내용을 실감나게 제시한 점에서 《原詩》 이론구상의 치밀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sup>25)</sup>

23) “意象是融入了主觀情意的客觀物象, 或者是借助客觀物象表現出來的主觀情意。”(蔣寅, <詩象·物象·意象·意境>《文學評論》2002年03期 참조)

24) 意象은 중국 시학에서 일찍부터 사용해왔던 개념인데, 대체로 ‘意’ 중의 ‘象’, 즉 생각 속의 형상이란 의미로 쓰이거나 예술적 형상이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意象의 ‘象’이 개별적인 사물이라면 意境의 ‘境’은 詩에서 구현된 품격이고, 象이 구체적 物象이라면 境은 종합적인 창조물이며, 象이 비교적 실질적이라면 境은 추상적인 편이다.(袁行霈, <中國古典詩歌的意象>, 《中國詩歌藝術研究》, 1987, 11쪽 참조) 서구시학의 개념어인 ‘이미지’와 그 의미가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意象이 主觀과 客觀을 아우르는 ‘意’와 ‘象’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이미지’와는 구별이 된다. 다시 말해 意象이 ‘意’와 ‘象’이라면 ‘이미지’는 意象에 비해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物의 ‘象’, 즉 物象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5) 趙天一, 위의 글 153-154쪽 참조.

혹자가 묻기를, ... 선배 유학자 朱熹는, '천하의 사물 중에 理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였지만, 詩에 있어선 物을 物로 삼을 수 없을 듯합니다. 詩의 지극한 점은, 詩語의 함축이 끝이 없고 詩의 상상이 오묘한 데 그 묘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탁한 바는 말로 형용할 수 있고 없는 사이에,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고 없는 사이에 자리하여, 말은 여기에 있는데 뜻은 저기에 있게 됩니다. 실마리는 없 어지고 형상은 흩어져서 의론을 끊어내고 사유를 다하게 되니, 현묘하여 헤아릴 수 없고 아련한 경지로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理'로 개괄하면, '理'란 일정한 규격을 갖춘 저울이니 채울 수는 있으나 비울 수는 없어서 잡을 수는 있으나 바뀔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게 아니면 진부한 게 됩니다. ("或曰: ... 先儒云: '天下之物, 莫不有理.' 若夫 詩, 似未可以物物也。詩之至處, 妙在含蓄無垠, 思致微渺, 其寄托在可言不可言之間, 其指歸在可解不可解之會, 言在此而意在彼, 泯端倪而離形象, 絕議論而窮思維, 引人於冥漠恍惚之境, 所以爲至也。若一切以理概之, 理者, 一定之衡, 則能實而不能虛, 爲執而不爲化, 非板則腐。"《原詩》內篇下)

위 예문에서 葉燮의 詩學 관점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입장의 주장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sup>26)</sup> 첫째, '理·事·情'의 개념은 文章은 몰라도 詩歌에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 詩歌의 가장 큰 심미특징은 숨축적이라는 데 있으므로 詩에 '言外之意'가 표현되어야 감상자를 무한한 詩의 감흥의 세계로 끌어 들일 수 있다. 셋째, '以理論詩'의 주장은 진부한 견해이다.<sup>27)</sup> 위 예문의 내용에는, 詩歌의 특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다. 즉 古典詩學의 이론적 경험과 주장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葉燮이 이어지는 글에서 우선 위 인용문의 지적에 찬동한다는 생각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그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杜甫의 <冬日謁玄元皇帝廟> 詩에 보이는 '碧瓦初寒外'라는 詩句를 위시로 한 다수의 詩句에 대한 분석을 예로 들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인식이나 사고와 구분되는 詩 감상법을 제안하고 있다.

(詩에 구현된) 당시의 상황에 자신의 몸을 처하게 하여 '碧瓦初寒外'라는 다섯 글

26) 위 예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언급이 주석 18)의 내용이므로 이를 포함시켜 요약한다.

27) 趙天一, 위의 글 154쪽 참조.

자에 담겨있는 情景를 음미하면, (그 情景을) 하늘이 만들고 땅이 안배한 듯 느껴 지니, 象으로 드러나고 눈으로 감촉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다만) 마음속의 말은 입으로 뱉어낼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도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나, 상상한 바를 마음속에서 터득하는 순간에 (‘碧瓦初寒外’란 詩句로 그려지는 情景을)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니, 마침내는 (다섯 글자의 詩句에) ‘안(內)’도 있고 ‘밖(外)’도 있으며, ‘한기(寒)’도 있고 ‘초겨울의 한기(初寒)’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然設身而處當時之境會，覺此五字之情景，恍如天造地設，呈於象、感於目、會於心。意中之言，而口不能言；口能言之，而意又不可解。划然示我以默會想象之表，竟若有內、有外，有寒、有初寒。”，〈原詩〉內篇下)

위 예문에서 예로 들고 있는 詩句에는 杜甫가 시를 지을 당시에 느꼈던 모든 감상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시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듯 상상해봐야 시인과 동일한 감흥을 느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詩의 감상이 그것인데, 논리적이거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詩 안에 담겨있는 개별적 意象들도 감지할 수 없고 또 杜甫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詩의 意境에 대한 체험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設身處景’에서 ‘呈於象、感於目、會於心’을 거쳐 ‘默會意象之表’로 이어지는 단계는, 葉燮 나름의 詩的 체험을 위한 구체적인 설정이 되는데, 이러한 감상법은 궁극적으로는 詩人만의 특수한 감정 곧 詩의 감흥을 표현하는 창작방법으로도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28)</sup>

葉燮은, 위 예문의 詩句 외에도 ‘月傍九霄多’, ‘晨鐘雲外濕’, ‘高城秋自落’ 등의 詩句에 理性的인 思惟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理·事’가 담겨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안과 밖으로 초겨울을 나눌 수 있는지(‘碧瓦初寒外’), 달은 왜 많은지(‘月傍九霄多’), 새벽종은 또 어떻게 젖었는지(‘晨鐘雲外濕’), 그리고 낙엽도 아닌 가을이 어떻게 떨어지는지(‘高城秋自落’) 등에 대한 물음은, 결국 이들 詩句 안에 또 다른 층차의 ‘理·事’가 담겨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葉燮이 제기한 것으로 읽혀진다. 일반적인 詩句에 비해 특수한 意境을 담고 있기에, 葉燮의

28) 紀昀 등이 《四庫總目提要》에서 <原詩>를 “作論之體”라고 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도는 나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外, 多, 濕, 秋’와 같은 개별적인 意象들은 또 각기 다음과 같은 意境을 구현하게 됨을 揭示하고 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理’와 펼쳐 살펴볼 수 없는 ‘事’, 그리고 곧바로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情’이 갖춰지면, 심원하고 아득함으로 ‘理’를 삼고, 상상하여 그러봄으로 ‘事’를 삼으며, 마음을 빼앗겨 황홀한 것으로 ‘情’을 삼게 되니, 바야흐로 ‘理’와 ‘事’와 ‘情’ 모두가 담겨진 지극한 말이 나오게 된다. (“惟不可名言之理, 不可施見之事, 不可徑達之情, 則幽渺以爲理, 想象以爲事, 惘恍以爲情, 方爲理至事至情至之語。”《原詩》內篇下)

‘幽渺’, ‘想象’, ‘惘恍’의 세 가지 경계를 통해 구현된 意境은, 창작 과정에서 이른바 詩人の 형상화 사유를 거친 詩的 표현이기 때문에, 詩化시킬 수 없는 ‘理·事·情’의 내재적인 함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詩人과 詩의 素材로서의 主·客의 상응성에 전체 시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형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理·事·情’은, 葉燮의 안목에선 詩와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후대의 評者 입장에선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葉燮이 <原詩>를 찬술하는 시점에선, 자신의 理論적 토대로서 제시한 ‘理·事·情’의 함의를 이중적 구조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나는 객관세계 범주에서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시인의 주관 정서와 결합된 심미표준으로서의 의미이다. 전자는 원래상태대로의 사물의 존재를 말하고 후자는 詩人만의 특수한 감정이 덧씌워진 창작소재와 그 詩의 표현들을 뜻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한 葉燮의 이러한 인식은 얼핏 抒情詩의 전통에 근접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在物者’에 ‘在我者’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양자 간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개념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sup>29)</sup>

결국 애초에 객관세계의 본질요소로 제안된 ‘情’의 개념은, 葉燮의 意象論 체

29) 王曉雯, 위의 글 33쪽 참조.

제에서 ‘言外之意’와 ‘象外之理’를 추구하는 심미표준으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情’에 과도하게 경도된 晚明의 문단경향에 주목하여 ‘理’를 통한 통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詩歌의 심미표준으로 ‘理·事’의 개념이 제안되었으며, 詩歌의 심미특성을 감안할 경우 예견되는 ‘理’에 대한 거부감을 덜기 위해 ‘情’의 개념으로 보완하려 한 것이 아닐까 싶다.

#### 4. 나오는 말

본고는 葉燮의 詩論을 재조명해보기 위한 연구과제의 첫 번째 기초 작업으로 작성되었다. 葉燮이 제시한 ‘理·事·情’의 개념에 어떠한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서구식 문학비평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난, 실제 내용에 보다 충실한 해석과 논증을 기대하며 1단계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理·事·情’의 개념은 葉燮 詩論의 핵심요소로 제안되었는데, 明末清初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개념적으로 철학적 담론과 시학적 담론의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둘째, 葉燮은 古代詩學의 이론적 성과와 교훈을 계승하고 空論化된 문단 풍조를 바로세우고자 《原詩》를 찬술하였다. ‘以理論詩’의 문풍이나 과도한 ‘情’ 일방의 풍조 모두를 비판하기 위한 방법으로, 詩歌 창작과 감상에서 ‘형상화 단계’를 설정하여 체계성을 보완하였다. 셋째, 詩歌의 심미표준과 철학 범주에서 원용한 ‘理·事’의 개념이 상충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理·事’의 내재적 함의에 이중적 의미구조를 설정하였다. 넷째, 전항의 연장선에서, 애초에는 객관세계의 구성요소로 제시된 ‘情’의 개념에 주관적 색채를 가미하여, 詩人 만의 특수한 감정으로서의 심미표준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다섯째, ‘理·事·情’이란 술어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성은, 明末清初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原詩》의 시학적 저술의도를 살리기 위한 葉燮만의 苦肉策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1단계 작업으로서의 논의가 충분치 못하여 2단계 과제로 넘기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原詩》의 핵심 술어인 ‘理·事·情’의 개념을 고대文論이나 詩論에서의 관련 논의와 비교하여 검토하지 못했는데, 추후의 연구 작업을 통해 보완할 것을 예정하며 논의를 마친다.

### < 參考文獻 >

- 北京大哲學系, 《中國美學史資料選編(下)》, 北京, 中華書局, 1982.
- 葉朗, 《中國美學史大綱》,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5.
- 葉變, 《原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9.
- 葉變, 이태형 역, 《譯註原詩》, 서울, 學古房, 2012.
- 蔣凡, 《葉變與原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趙美媛, <明末清初의 情에 대한 談論과 小說의 再現樣相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28》, 서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4.
- 趙則誠, 張連弟, 畢萬忱主編, 《中國古代文學理論辭典》,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7.
- 黃保真, 蔡仲翔, 成夏旺, 《中國文學理論史》, 北京, 北京出版社, 1987.
- 管磊, 《淺析葉變〈原詩〉中的“情”》, 上海,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馬莹, 《葉變〈原詩〉詩學思想基本特質的再檢討》, 雲南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 백승규, 《葉變의 <原詩> 譯註》,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 李曉峯, 《葉變〈原詩〉研究》, 蘇州, 蘇州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 張鴻, 《宇宙與意象》研究及中國古代宇宙詩學論, 中國社會科學院博士學位論文, 2014.
- 趙天一, 《中國古典意象史論》, 重慶, 西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 최병학, 《葉變 <原詩>의 詩論體系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9.
- 김해명, <시가창작에 관한 葉變의 주·객관조건>, 《중국어문학논집 4》, 1992.
- 卜松山, 王文兵, <論叶變的《原詩》及其詩歌理論>, 《河北師院學報》, 1997.
- 成夏旺, <對葉變詩歌創作論之思考>, 《文學遺產: 5》, 1986.
- 葉朗, <葉變的美學體系>, 《文藝理論研究》, 1980.
- 牛林杰, <동서양 문학비평 담론의 차이에 대한 고찰> 《亞細亞文化研究-10》, 2006.
- 印錫華, <葉變《原詩》美學思想淺論>, 《徐州師範學院學報: 3》, 1985.
- 蔣凡, <關於葉變的學術思想>, 《學術月刊: 1》, 1984.

田義勇, <葉變《原詩》的理論失敗及教訓>, 《雲南大學學報》第8卷3期, 2009.  
程麟輝, <葉變美學思想之我見>, 《江西師範大學學報: 4》, 1982.

### < 中文提要 >

葉變是明末清初時期一位重要的文學批評家。他的詩學理論專著《原詩》，在其系統性和深刻性上足以和劉勰的《文心雕龍》相媲美。然而由於葉變身份低微，《原詩》又不同于人們以往已經習慣接受的感興式的古文論、詩論，因此在很長一段時間裏葉變的《原詩》并未引起人們的足夠重視。雖然近年來對葉變的研究有所增加，然而人們多是從體系化的觀點或介紹的角度闡述葉變的詩論內容，在其術語的實質含意和矛盾性上探討得還不夠充分。因此，筆者採取“如切如磋，如琢如磨”的閱讀方法，精讀《原詩》，對葉變詩論的實質內容進行梳理，找出葉變詩論中的閃光點和矛盾性、局限處，從而探求葉變詩論在詩論史上的意義。

關鍵詞：《原詩》，‘理·事·情’，意象，術語，體系化，矛盾性，實質含意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9. 5.	2014. 10. 29.	2014. 11. 3.	2014. 11. 12.	2014. 11. 30.